말 달리자

현불논단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말은 되지 모두들의 잘못인가 난 모두를 알고 있지 닥쳐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달리는 것뿐이다 무얼 또 바라냐'.

밴드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라는 노래의 가사다. 이 노래가 처음 나왔던 1998년에는 매우 파격적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약 20년이 지난 요즘에 다시 들어 보면 이 사회에서의 삶을 참 재미있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든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뉴스 등에서 여러 문제를 보며 '이건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탓하지만, 결국 모든 원인에는 우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을사년이 지나간다. 시간은 우리 곁에 영원토록 있는 듯하지만, 단 순간도 우리를 기다려 준 적 없고 시간의 흐름대로 맹렬히 앞을 향해 나아간다.

올 한 해도 수많은 문제와 대립과 일들이 벌어졌다.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여유를 즐기고 누군가는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 과연 안 그랬던 날이 있었던가? 정말 '살다 보니 그런 거지'이다. 그럼 그런 삶을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니다. 우리는 불교를 믿고 그 법을 따르며 수행적 삶을 살기에 다르다.

불교의 핵심은 수행과 변화다. 수행을 하면 범부인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불교는 석

한 해 미련 갖고 원망해선 안 돼
병오년 업과 번뇌 반복하지 않고
말처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에 따라 모든 인간이 자신의 수행과 노력에 의해 지금 당장 변하여 내일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실하게 설한다.

올 한 해 동안 혹여 아쉽거나 미련이 남거나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절대 그것들을 원망하고 아쉬워만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내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붉은 말이 맹렬히 달리는 2026년 병오년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이 우리의 업과 번뇌와 문제가 타버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해야 하고, 앞을 향해 질주하는 말과 같이 우리의 오늘을 충실하고 아깝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

말이 잘 달리는 이유는 뒤의 땅을 힘차게 치고 나오고, 지금의 땅에 발을 잘 딛고, 다음 땅을 향해 정확히 발을 내딛기 때문이다. 우리가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도 어제를 힘차게 딛고 일어나 오늘 이 순간을 잘 확인하고 살아서, 내일의 우리에게 정확히 노력과 공덕을 내줘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달리는 것뿐'이라는 가사와 같이 우리는 잘 달릴 수 있다. 다소 실수를 하거나 잘못 갔어도 다시 잘 달려가면 된다.

'땅에 넘어진 자, 그 땅을 딛고 일어나라'는 보조 지눌 선사의 정혜결사문과 같이 우리는 이 땅과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땅에서 힘차게 딛고 일어나 새해를 붉은 말처럼 잘 달리자. 앞을 향해 한 걸음씩 뚜벅뚜벅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깨달음도 행복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행과 정진은 될 때까지 할 것이고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일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2025년이지만,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시는 인연들의 곁에 항상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발원드린다. 2026년 새해도 항상 법답고 바른 가르침을 수행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달력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새해 달력을 선물 받았다. 새 달력은 일 년을 어떻게 잘 살아갈지 먼저 생각하게 하고, 자연스레 지나온 일 년을 돌아보게 한다. 이맘때는 일 년 중 달력에 관심이 가장 많은 시간이 아닐까 싶다.

어느 사찰 달력을 식탁에 두었는데 밥을 먹다가도 지장재일, 관음재일 글자가 눈에 들어오면 그날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오늘 하루 지장보살의 마음으로 살아 봐야겠구나,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흉내라도 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달력의 역할은 이미 달성했다고 본다.

인공지능이 21세기 해결사가 될 것만 같은 세상이어도 '동지'라는 두 글자는 겨울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걸 알려 준다. 달력에서 '입춘'이란 글자를 발견하면 생강나무 꽃향기가 코끝에서 느껴지는 것만 같고 글자 안에 안온함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 같다. 24절기가 우리 삶을 지배할 힘을 잃고 기후 시스템이 널뛰는 시절이어도 '입추'라는 두 글자는 폭염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위로를 건네 준다. 생각해 보니 달력은 꾸준히 내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던 거다. 작은 추위, 큰 추위가 물러가고 나면 포근해질 거라 일러 준다. 보슬보슬 봄비가 대지를 적시면 봄비 편지를 받은 개구리는 긴 겨울잠에서 기지개를 켤 거라고. 그저 무뚝뚝하게 숫자만 한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했던 달력이 들려 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대지

기후 위기·생물다양성 훼손 인류 탓
지구 오염 등 우리 책임 잊지 않아야
생명 더 챙기는 '불살생' 새해 됐으면

의 리듬이고 생명의 순환이었다.

청명하게 맑은 날에 나무를 심자고 '식목일'을 달력에 새겨 넣었는데 기후가 변하면서 나무를 심기 적절한 시기도 변하고 있다. 지구 기온이 오르면서 땅속 온도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한 환경단체는 '온난화 식목일'을 만들었다. 식목일에 아무리 나무를 심은들 종이를 마음껏 소비한다면 나무 심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식목일 전날을 '종이 안 쓰는 날'로 만들었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바버라 인근에 있던 원유 시추 시설이 폭발하면서 갈라진 틈으로 원유 10만 배럴이 쏟아져 나와 어마어마한 규모로 바다를 오염시켰다. 수많은 해양 생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일을 계기로 미국에서만 2000만 명이 자연 훼손과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지킬 '지구의 날'을 만들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런 기념일들은 우리 환경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동물이 절멸의 끝자락에서 버둥거리고 있는지 절절하게 전해 준다. '지렁이의 날', '고래의 날', '참새의 날' 같은 기념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기념일은 단지 환경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항변할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환경 기념일을 만들고 알리는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보살이 아닌가 싶다.

인류가 기후를 어긋나게 만들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며 지구를 쓰레기장으로 만든 장본인이기에 지금 이 시대를 '인류세'라 부른다. 우리 인류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잊지 않으려 새 달력을 받으면 내가 알고 있는 환경 기념일을 달력을 넘겨 가며 날짜를 찾아 적어 둔다. 새해에는 자기 목소리와 자리를 잃은 수많은 생명을 더 챙기는 '불살생'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社 說

고통 속 피어난 자비, 성찰로 새해 열자

다시, 시간의 매듭을 짓는 세밑이다.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2025년은 인고와 정진이 교차한 엄중한 시간이었다.

사회적으로는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랑을 겪었고, 자연은 대형 산불과 수해로 천년고찰과 삶의 터전을 위협했다. 불교 내부적으로는 조계종 청사 화재라는 예기치 못한 시련도 겪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과 상실의 순간마다 불교계는 침묵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의 한복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사회의 균열을 메우는 역할을 자임했다는 점에서 2025년은 한국불교의 사회적 책임과 존재 이유를 다시 확인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사회적 위기에 국민 곁에 선 불교
재난과 상실에도 멈추지 않은 자비
올해의 교훈을 새해의 지혜로 회향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교계가 보여준 행보는 상징적이다. 각 종단은 국민의 불안과 상처를 먼저 헤아렸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해결과 대화합을 일관되게 호소했다. 헌정사의 중대한 국면에서도 폭력과 대립을 경계하며 '상생과 통합'을 강조했다. 종교가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갈등을 녹여내는 공적 자산임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자연재해가 남긴 상흔은 깊었다. 경북 산불로 고운사를 비롯한 전통사찰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고, 집중호우는 전국 곳곳의 사찰과 지역 공동체를 휩쓸었다. 그럼에도 불교계는 복구와 지원,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수행과 실천이 둘이 아님'을 몸소 보여줬다.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태고종과 관음종은 종단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도약을 선언했고, '힙불교'로 상징되는 청년 세대와의 만남은 불교가 '살아 있는 종교'임을 확인시켜 줬다. 또 불교사회복지 30년의 성과는 자비의 구체적 실천법을 제시했고, 미얀마 지진 현장 등에서의 국제구호는 동체대비의 정신이 국경을 넘어 흐르고 있음을 보여줬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교 독립운동사를 복원한 노력과, 사회적 약자의 곁을 지킨 연대 활동은 불교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고통을 함께 껴안는 종교임을 확인시켰다. 동시에 큰스님들의 잇따른 원적은 수행과 전법의 무게,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과제를 우리 앞에 놓았다. 종교인구조사를 앞두고 범종단적 대응에 나선 것 또한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불교의 내일을 준비하려는 자각의 발로다.

이제 송년의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해의 교훈을 새해의 지혜로 전환하는 '회향'이다. 2025년의 불교는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기에 위로할 수 있었고, 갈등을 피하지 않았기에 화합을 말할 수 있었다.

2026년의 한국불교는 그 위로와 화합을 일상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꽃피워야 한다. 자비는 더욱 세심하게 중생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지혜는 사회적 목소리로 더 당당히 드러나야 한다. 새해를 향한 기대는 막연한 낙관이 아닌,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고통의 현장에 가장 먼저 다가가고, 역사를 잊지 않으며, 미래세대와 소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교. 그 정진의 길 위에서 한국불교는 2026년에도 우리 사회의 든든한 등불이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2월 24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12월 24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2월 24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12월 24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